

팀 켈러의 목회론: 『팀 켈러의 센터처치』를 중심으로

양현표

(충신대학교, 조교수, 실천신학)

- I. 들어가는 글
- II. 팀 켈러의 간략한 생애와 목회 여정
- III. 팀 켈러의 목회론
- IV. 팀 켈러의 목회론에 대한 평가
- V. 나가는 말

[초록]

본 연구는 뉴욕의 리더머 장로교회의 설립자요 오랫동안 담임목사로 사역했으며, 현재는 “리디머시티투시티”(Redeemer City to City) 운동에 전념하고 있는 팀 켈러 목사의 목회론을 주제로 한다. 본 연구는 『팀 켈러의 센터치』를 중심으로 하여, 그의 다양한 저술 그리고 그가 주관한 다양한 세미나에서 사용된 자료들을 기초로 하였다.

켈러의 목회론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복음”, “도시(문화)”, “사역(교회개혁)”이다. 이러한 세 개의 축 아래서 다음 몇 가지의 목회론적 주제들을 연구자는 찾을 수 있었다. ①복음 중심의 목회론, ②도시 중심의 목회론, ③문화(상황화) 중심의 목회론, ④사회정의(구제) 중심의 목회론, 그리고 ⑤교회개혁 중심의 목회론 등이다. 물론 이 밖에도 가정 중심의 목회론, 일터 중심의 목회론, 기도 중심의 목회론, 변증 중심의 목회론, 선교적 교회 목회론 등을 그의 목회론 등도 발견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다섯 가지만을 켈러의 핵심 목회론으로 간주하였다.

켈러의 목회론을 평가하자면, 첫째, 켈러의 목회론은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인식 위에 구축되었으며, 둘째, 개혁주의 신학 위에서 포용적이며 융통성 있게 구축되었고, 셋째, 탁상공론이 아닌 목회 현장 위에서 구축되었고, 넷째, 지성을 기초로 하여 변증적으로 구축되었다고 하겠다. 하지만 그의 목회론에도 조그마한 약점이 있는바, 그의 목회론이 인간의 판단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이상주의적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켈러의 목회론을 한국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의 과제가 남는다. 켈러의 목회론은 품질이 뛰어난 씨이다. 그런데 아무리 고품질의 씨앗이라고 하더라도 토양이 그 씨앗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켈러의 목회론이란 씨앗은 미국 뉴욕이라는 토양에서 개발되었고 그 토양에서 발화되어 열매를 맺었다. 과연 그 씨앗이 대한민국이란 토양에서 발화하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이 오늘 팀 켈러를 공부하는 우리의 과제라고 믿는다.

키워드: 팀 켈러, 리더머 처치, 목회론, 복음, 도시, 문화

논문투고일 2022.01.29. / 심사완료일 2022.03.02. / 게재확정일 2022.03.07.

I. 들어가는 글

팀 켈러(Timothy Keller, 1950-), 그는 누구인가? 그는 목회자이다. 동시에 그는 설교가이며 방대한 지적 자료를 창출한 저술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다. 그의 지성을 높게 평가한 「뉴스위크」(*Newsweek*)는 2008년 9월 2일 자 판에서 그를 가리켜 “21세기의 C. S. 루이스”라고 칭송했다. 무엇보다도 그는 뉴욕의 도심 맨해튼에서 리더머 장로교회(Redeemer Presbyterian Church)를 개척하여 크게 성장시킨 목사로서, 도시에서의 교회개척과 성장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왔다고 평가받는다.

켈러가 개척하여 성장시킨 리더머 교회는 뉴욕 시 전체를 변화시키는 데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리더머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 뉴욕은 1%의 복음화율이었는데, 리더머 교회가 자리를 잡은 이후 복음화율이 5%로까지 상승했다는 보고가 있다.¹ 켈러가 뉴욕에서 목회를 시작한 이후 뉴욕의 범죄율까지도 낮아졌다고 한다. *Christian Today*의 수석 기자 스태포드(Tim Stafford)는 리더머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인을 포위된 소수에서 확신에 찬 소수로 이끌어 낸 교회”, “뉴욕의 이러한 변화를 이끄는 첫 번째 교회”라고 했다.² 이러한 평가들은 켈러의 영향력이 그만큼 컸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켈러는 지금까지 50여 권에 가까운 저술을 비롯하여 각종 논문과 인터뷰 기록 등을 남기고 있다.³ 2008년에 출판된 『탕부 하나님』(*The Prodigal God*)

* 본 연구는 2021년 9월 9일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에서 개최되었던 <팀 켈러의 목회와 설교>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1 “뉴욕시 리더십 센터(New York City Leadership Center)에 의하면, 1975년에 맨해튼에 약 10개의 복음주의 교회가 있었다. 지금은 [2011년] 200여 개가 넘는 복음주의 교회들이 있다. 10개 중의 4개는 2000년 이후에 생겼다.” Bob Smietana, “Urban Planter: Who Fills the Pew of the Big Apple?,” *Christianity Today* 55/5 (May 2011), 21. “It has been estimated ... there was a new evangelical church founded nearly every week between 2008 and 2010. Indeed, the number of congregates in Manhattan Center City has tripled in ten years.” William Myatt, “God in the Gotham: Timothy Keller’s Theology of the City,” *Missiology* 44/2 (Apr. 2016), 181.

2 Tim Stafford, “How Tim Keller Found Manhattan,” *Christianity Today* 53/6 (June 2009), 25.

3 켈러의 거의 모든 저술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다고 보인다. 그의 논문이나 기타 글들 역시 켈러의

을 포함한 수 권은 이미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가 선정한 베스트셀러에 이름을 올렸다. 이러한 켈러의 많은 저술 중에서도 2012년에 출판된 『팀 켈러의 센터처치』(*Center Church: Doing Balanced, Gospel-Centered Ministry in Your City*, 이하 『센터처치』라고 함)는 그의 신학과 방법론이 잘 정리된 걸작품이라 하겠다.

연구자는 『센터처치』에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켈러의 목회론을 살펴 보려 한다. 켈러의 걸작품인 『센터처치』는 크게 “복음”, “도시”, “사역”이란 세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축은 그의 목회론의 핵심이다. 그의 다양한 저술에서 이 세 축은 때로 “복음”, “도시”, “교회개혁”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혹은 “복음”, “문화”, “운동”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켈러는 이러한 세 가지 큰 축 아래 그의 목회론과 방법론을 보여주는 여러 소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제 연구자는 먼저 켈러의 간략한 일대기를 살펴보고, 『센터처치』를 중심으로 하여, 그의 다양한 저술 그리고 그가 주관한 다양한 세미나에서 사용된 자료들(〈한국 시티투스티〉에서 사용하는 세미나 자료 포함)을 검토함으로 켈러의 목회론을 추출해 보려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켈러의 목회론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 연구를 마치려 한다.

II. 팀 켈러의 간략한 생애와 목회 여정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성장한 팀 켈러는 버크넬 대학(Bucknell University)에 진학했다. 이곳에서 그는 IVF(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에 의하여 회심했으며 이후 IVF 스태프로 활동하였다. 대학을 졸업한 그는 고든 콘웰 신학교(Gordon-Conwell Seminary)에서 목회학 석사(M. Div.)를 마쳤으며, 곧이어 미국 동부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에서 하비 콘(Harvice

목회를 지향하는 〈시티투스티 코리아〉에서 개최하는 각종 프로그램에서 번역되어 활용되고 있다.

Conn)의 지도로 목회학 박사(D. Min.) 학위를 얻었다.

켈러의 첫 목회지는 버지니아 주의 한 작은 마을인 호프웰의 〈웨스트 호프웰 장로교회〉(West Hopewell Presbyterian Church)이었다. 그가 그곳에서 목회를 시작할 때의 나이는 불과 24세였다. 그는 이곳에서 9년간(1975-1984) 담임 목회자로 사역했다. 이 작은 시골 교회에서의 목회를 통하여 켈러는 그가 장차 이루어낼 목회자로서 가치관과 실력과 비전을 키웠다. 교회를 사임한 이후 1984년부터 1989년까지 5년간 켈러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실천신학 교수로 봉직하였다. 또한, 동시에 교단(PCA)의 〈국내선교위원회〉(Home Mission Board)에 속하여 교회개척 사역에도 헌신하였다. 이 무렵에 켈러는 그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두 가지 중요한 상황을 경험한다. 하나는 그의 목회학 박사 지도교수인 하비 콘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는 콘에 의해 장차 그의 목회를 지탱할 중요한 원리 중의 하나인 “도시신학”(Urban Theology)을 형성하였다. 다른 하나는 교단의 〈국내선교위원회〉으로부터 맨해튼에 교회를 개척해 보라는 요청을 받았다.⁴

켈러는 교단의 요청을 수락하지 않았다. 그 대신 누군가가 맨해튼에 교회를 개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뉴욕 시에 관한 사전 연구를 수행하는 일에는 동의했다. 그는 연구를 위하여 일주일에 한 번씩 맨해튼을 방문했다. 정기적으로 맨해튼을 방문하는 수개월 동안에 뜻밖의 변화가 켈러를 찾아왔다. 바로 그 일이 즐거워지게 된 것이다. 도시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된 것이다. 지난 수년 동안 하비 콘과의 교제를 통하여 영향받은 도시신학이 본격적으로 켈러만의 방법론으로 구체화되었다.

하지만 켈러가 맨해튼으로 가기에는 몇 가지 장애물을 뛰어넘어야만 했다. 우선은 그의 기질과 라이프스타일이라는 장애물이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도시와는 거리가 있었다. 그는 조용한 교외에 거주하는 전형적인 백인 라이프스타일의 사람이었다. 맨해튼에서의 세 아들 교육도 하나의 두려움이자 큰 장애물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부모를 비롯하여 주변의 지인들의 만류도 만만치 않은 장애물이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맨해튼에서의 교회개척을 부정적으로 보고 만

4 Stafford, “How Tim Keller Found Manhattan,” 22.

류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켈러와 그의 아내 케시(Kathy)는 거부할 수가 없었다. 하나님은 켈러와 케시에게 확신을 주셨다. “켈러 가족은 드디어 교외 생활을 떠날 준비가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지옥이라고 여겨지는 곳을 향하였다.”⁵

켈러가 교회개혁을 준비하던 1980년대 뉴욕은 세속주의, 물질주의, 성공주의, 과학주의, 이성주의, 사상적, 종교적 그리고 문화적 다원주의, 전통 가치관의 몰락, 무신론적 가치관의 득세, 자유로운 성문화, 감각적 욕망, 각종 범죄, 가난, 인종 문제, 그리고 높은 물가 등 총체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특별히 당시 뉴욕은 복음의 불모지였으며, 교회들은 쇠락하였고, 목회자들의 무덤이라고 여겨졌다. 목회자를 포함하여 백인들은 안전과 자녀 교육을 이유로 주거지를 도심에서 교외로 옮기는 판국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켈러 가족은 오히려 뉴욕의 도심 맨해튼을 향하였다.

1989년 4월 9일, 켈러와 그의 아내 케시는 드디어 맨해튼의 어느 제칠일 안식교회의 건물 한편을 빌려 리더머 교회를 시작했다.⁶ 교회는 양적으로 급성장했다. 첫해에 평균 250명이 매 주일예배에 참석했다. 그다음 해엔 600명이 참석했다. 한 장소에서의 예배 수용인원이 불가해지자, 켈러는 다른 예배 처소를 마련하였고 그는 각 예배 장소를 분주히 옮겨 다니며 목회를 감당하였다. 켈러가 은퇴할 무렵인 2017년 무렵에 리더머 교회는 “8000명 이상의 신자들로 활기 넘치는 교회”⁷가 되어 있었다.⁸

켈러는 2017년 리더머 교회에서 28년의 사역을 마감하고 67세의 나이로 은퇴했다. 그의 은퇴와 더불어 리더머 장로교회는 맨해튼 3개 지역(이스트사이드, 웨스트사이드, 미드타운)에 각각 독립된 교회로 분립하였다. 켈러는 하나의

5 Stafford, “How Tim Keller Found Manhattan,” 23.

6 오종향, “복음으로 세속화된 도시를 변화시키라,” 『목회와 신학』 324(2016.6), 194.

7 오종향, “복음으로 세속화된 도시를 변화시키라,” 194.

8 리더머 교회의 교인 수에 대한 묘사는 다양하다. 손병덕은 4,500명이라고 말하고 있다. 손병덕, “뉴욕 중심가에 복음으로 선한 사역을 일으키는 리더머 장로교회,” 『목회와 신학』 326(2016.8), 123. 김운용은 5,000여 명이라고 말하고 있다. 김운용, “팀 켈러의 설교 사역과 그의 변증적 특성,” 『목회와 신학』 361(2019.7), 79.

대형교회를 세우기보다는 도시를 더 효과적으로 섬기고 더 많은 교회개척을 위해 흩어짐을 선택한 것이다.⁹ 켈러는 리더머 교회의 분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렇게 교회가 부흥할 줄 몰랐다. 교회의 성장에 누구보다도 놀란 사람은 나 자신이다. 작년 5월에 은퇴하면서 교회를 세 개로 분립했다. 내 꿈은 12년 안에 12개의 작은 교회로 더 분립하는 것이다.¹⁰

은퇴한 이후 지금까지, 켈러는 2001년에 시작한 “리디머시티투시티”(Redeemer City to City) 운동에 전념하고 있다. 이 사역은 “모든 대륙의 국제도시들에서 다양한 신학적 전통을 가진 교회 개척에 참여하는 비영리조직”으로, 그동안 교회가 지향해 온 신학적 비전을 중심으로 훈련과 코칭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¹¹ 켈러에 대한 최종적 평가는 분명 그의 사후에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그의 사역은 오늘날의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도전을 주고 있다고 보인다.

Ⅲ. 팀 켈러의 목회론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켈러의 목회론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복음”, “도시(문화)”, “사역(교회개척, 운동)”이다. 켈러의 은퇴와 더불어 분립한 이스트사이드 리더머 교회 담임목사인 아브라함 조의 설명에 의하면, 켈러의 목회론의 주제는 복음, 도시, 자비와 정의, 믿음과 행함의 통합 등이다.¹²

9 서동준, 김재완, “팀 켈러의 목회 여정과 뉴욕에서의 개척, 그리고 분립,” 『크리스천투데이』 (2018.02.15.),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09572> (접속일: 2021년 8월 11일).

10 이동환, “도시를 이해하고 복음으로 도전하라: CTC 이사장 팀 켈러 목사,” 『목회와 신학』 346(2018.4), 44.

11 김운용, “팀 켈러의 설교 사역과 그의 변증적 특성,” 79.

12 김보경, “스페셜 인터뷰: ‘오직 복음과 신실함으로 행하라’-미국 이스트사이드리더머교회 담임 아브라함 조 목사,” 『목회와 신학』 376(2020.10), 30.

아세아연합신학대학 설교학 교수인 신성욱은 “‘팀 켈러’ 하면 가장 먼저 연상되는 단어는 ‘복음과 도시 그리고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쉽게 표현하면 복음이란 씨앗을 도시라는 토양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다”¹³라고 말함으로, 켈러의 신학을 간단하지만, 그러나 탁월하게 정리하고 있다. 이러한 켈러의 목회론은 그 어떤 저술보다도 『센터처치』에 종합적으로 고스란히 담겨 있다. 켈러는 “복음”이라는 축 아래 복음신학과 복음부흥에 관하여, “도시”라는 축 아래 상황화와 문화에 관하여, 그리고 “사역”이라는 축 아래 선교적 교회와 교회개혁, 그리고 각종 사역 형태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이러한 세부 주제들은 켈러의 모든 저술에서 반복되어 설명되고 있다.

연구자는 켈러의 목회론을 추출하기 위하여 『센터처치』를 중심으로 하여 그의 모든 저술과 관련 문헌, 그리고 관련 세미나에서 사용되는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다음 몇 가지의 목회론적 주제들을 찾을 수 있었다. 그것은 그의 목회론이 ①복음 중심의 목회론, ②도시 중심의 목회론, ③문화(상황화) 중심의 목회론, ④사회정의(구제) 중심의 목회론, 그리고 ⑤교회개혁 중심의 목회론이라는 사실이다. 물론 이 밖에도 가정 중심의 목회론, 일터 중심의 목회론, 기도 중심의 목회론, 변증 중심의 목회론, 선교적 교회 목회론 등을 그의 목회론으로 꼽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연구자는 켈러의 『센터처치』를 중심으로 그의 목회론을 연구한다는 전제이었기에, 이상의 다섯 가지만을 켈러의 핵심 목회론으로 간주하고 그것들을 소개하려고 한다.

1. 복음 중심의 목회

“켈러에게 있어서 ‘복음’은 사역의 본질이며, 중심이다.”¹⁴ 켈러의 목회론, 아니 그의 전체 신학의 기초는 복음이다. 그의 모든 사역의 밑바닥에는 복음이 있다. 그의 모든 저술의 바탕에는 복음이 깔려 있다. 그의 목회론의 핵심은 복음으로 하는 목회이다. 이러한 사실은 그의 『센터처치』 파트 1과 파트 2에

13 신성욱, “팀 켈러 설교의 상황화와 적용,” 『목회와 신학』 361(2019.7), 87.

14 김운용, “팀 켈러의 설교 사역과 그의 변증적 특성,” 79.

자세하게 드러나 있다.

켈러는 먼저 모든 말씀이 복음은 아니라고 하면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의한다. 그는 “복음은 우리가 위험(죄)으로부터 구출되었는지에 대한 메시지이다”라고 정의한다. “복음은 우리가 행하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행해진 무엇이며 우리가 반응해야만 하는 어떤 것이다”¹⁵라고 말한다. 또한, 복음은 권면이 아니라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어떤 것에 대한 소식이라고 말한다. 때문에, 복음은 율법주의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

켈러는 흔히 복음으로 착각할 수 있는 복음의 심각한 적 두 가지를 “종교”와 “비종교”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지적한다.¹⁶ 첫째는 종교(Religion)라는 적이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율법주의(Legalism) 혹은 도덕주의(Moralism)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죄악을 미워하시기에 우리가 그분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바른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이 종교의 주장이다. 그래서 개인의 행위 그 자체를 강조한다. 그렇기에 종교는 “은혜 없는 진리”를 강조한다. 「목회와 신학」과의 인터뷰에서 켈러는 이러한 종교와 복음의 차이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종교는 신에게 기도하는 것, 신에게 나아가는 것, 신으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행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복음은 자기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다.¹⁷

둘째는 비종교(irreligion)라는 적이다. 이를 다른 말로 한다면 율법폐기주의(Antonomianism) 혹은 상대주의(Relativism)/실용주의(Pragmatism)라고

15 Timothy Keller, *Center Church: Doing Balanced, Gospel Centered Ministry in Your City*; 오종향 역, 『팀 켈러의 센터처치』 (서울: 두란노, 2016), 52.

16 켈러는 “종교” 혹은 “비종교”라는 어휘를 그 본래 의미와 다르게 자신만의 독특한 의미로 사용한다. 켈러가 사용하는 종교의 의미는 율법주의(legalism)와 도덕주의(moralism)이며, “비종교”는 율법폐기주의(antonomianism)와 상대주의(relativism)/실용주의(pragmatism)를 의미한다. 결국, 켈러는 이 용어들을 “복음”이 변질하여 도달하는 양극단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17 이동환, “도시를 이해하고 복음으로 도전하라: CTC 이사장 팀 켈러 목사,” 37.

할 수 있다. 이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받아 주시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인지는 개인 스스로 결정하면 된다는 주장으로 개인의 느낌과 감정을 강조한다. 그렇기에 비종교는 “진리 없는 은혜”만을 강조한다.

결국, 켈러가 말한 복음의 두 대적을 정리하면, 종교는 도덕주의 혹은 율법주의를 의미하고, 은혜 없는 진리를 신봉하며, 행위에 치중하는 것이라 한다면, 비종교는 상대주의, 혹은 율법폐기론을 의미하고 진리 없는 은혜를 추구하며, 감정에 치중하는 것이라 하겠다.¹⁸ 베스트셀러가 된 그의 책 『팀 켈러, 하나님을 말하다』(*The Reason for God*)에서 켈러는 “‘종교’는 ‘윤리적 노력을 통한 구원’, ‘복음’은 ‘은혜를 통한 구원’¹⁹이라고 말함으로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간결하면서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켈러는 강조한다. 즉 복음과 선한 행위를 혼동하지 말라는 것이다. 선한 행위는 복음의 결과일 뿐이지 복음 자체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복음을 복음의 결과인 선행과 동일시하는 종교(율법주의나 도덕주의)를 비판한 것이다. 결국, 종교는 은혜가 배제된 인간 노력과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인본주의라 할 것이며 그러나 복음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구원이며, 인간의 노력과 행위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결과라는 것이 켈러의 주장이다.

켈러는 복음이 개인 구원과 관련됨과 동시에 세상 구원과도 관련된다고 말한다. 그는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을 보면 복음의 보완적인 성격, 곧 구원의 개인 차원 및 공동체적 차원들을 볼 수 있다”²⁰라고 말하면서, 복음의 이 두 차원이 서로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세상 구원에는 침묵하면서 개인 구원에만 치중하는 복음은 위험한 복음이며, 동시에 복음을 단지 “이 세상을 갱신하는 이야기”²¹로만 이해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말한다.

복음이 모든 목회자와 교회 사역의 기초가 되어야 함을 켈러는 강력하게

18 Keller, 『팀 켈러의 센터처치』, 59.

19 Timothy Keller, *The Reason for God*. 최중훈 역, 『팀 켈러, 하나님을 말하다』 (서울: 두란노, 2017), 272.

20 Keller, 『팀 켈러의 센터처치』, 80.

21 Keller, 『팀 켈러의 센터처치』, 62.

역설하고 있다. 켈러는 “모든 형태의 사역은 복음에 의해 동기 부여되고 복음에 기초해야 하며, 또한 복음의 결과여야 한다”²²라고 말한다. 그에 의하면, 복음은 우리가 하는 모든 목회의 기초이고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며,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능력이다.²³

마지막으로, 켈러는 우리가 우리의 사역 현장에서 복음을 상황화(Contextualization)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²⁴ 켈러는 “복음은 단 하나의 메시지가 아니라, 결코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다”²⁵라고 말하면서, 복음의 상황화는 사도 바울의 전략이었다고 주장한다(행 13장; 행 14장; 행 17장; 고전 1:22-15). 그는 “바울이 설교를 듣는 청중의 이해력과 믿음에 따라 복음을 표현하고 논증하는 방법도 달랐다”²⁶라는 점을 주목하라고 한다. 상황화에 관한 켈러의 견해는 뒤에서 다루게 될 문화와의 관계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게 될 것이기에 여기에서는 더는 언급하지 않으려 한다.

2. 도시 중심의 목회

“복음으로 도시를 품으라”는 기치 아래 만들어진 켈러의 도시 중심의 목회론은 켈러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탁월한 목회론이라고 판단한다. 켈러는 본시 기질 면에서나 라이프스타일 면에서 도시를 즐기는 도시형 목회자는 아니었다. 처음 맨해튼에서의 교회개척을 권면 받았을 때 그는 거절했었다. 하지만 그는 궁극적으로 도시를 사랑하게 되었고, 도시에 대한 강력하고 확실한 성경적 그리고 신학적 체계를 구축하여 그의 센터처치에 포함시켰으며, 누구보다도 그 자신이 탁월한 도시 목회자가 되었다.

켈러에게 도시에 대한 신학을 정립하도록 강력한 영향을 끼친 사람은 당연히 그의 목회학 박사 지도교수이자 훗날 켈러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가 됨으

22 Keller, 『팀 켈러의 센터처치』, 72.

23 Keller, 『팀 켈러의 센터처치』, 94.

24 Keller, 『팀 켈러의 센터처치』, 89.

25 Keller, 『팀 켈러의 센터처치』, 90.

26 Keller, 『팀 켈러의 센터처치』, 90.

로 동료가 된, 한국명 간하배로 알려진 선교학 교수, 특별히 도시 선교 분야의 대가로 알려진, 하비 콘(Harvie Maitland Conn, 1933-1999)이었다. 콘 교수는 켈러에게 도시에 대한 긍정적인 성경관을 심어주었다.²⁷

켈러는 “성경에서 말하는 도시의 요체는 인구수에 있지 않고 밀도에 있다. 도시는 사람들이 밀집하여 모여 사는 사회적 형태이다”²⁸라고 도시를 정의한다. 켈러는 도시의 양면성에 관해서도 말한다. 도시는 안전(Safety)과 안정(Stability), 다양성, 그리고 생산성과 창조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켈러는 종종 도시 삶이 가져오는 더러운 면을 묵과하지 않는다. 그는 말하기를 도시는 인간 본성의 최선과 최악의 국면을 함께 보이는 ‘Powerful Magnifying Glass Effect’를 갖고 있다고 말한다.²⁹ “성경은 도시에 대해서 부정이나 긍정하지 않는다. 모든 도시는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최선과 최악의 것을 극대화한 현장이라고 본다.”³⁰

켈러의 도시 신학은 에덴동산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그의 도시 신학의 핵심과 그것을 목회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궁극적 근거는 세속 도시 바벨론이다. 저드슨 대학(Jundson University) 성경신학 교수 마이아트(William Myatt)는 “켈러가 그의 도시 신학을 형성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사건은 바벨론 유수이다”³¹라고 주장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은 켈러의 도시 신학의 근거이다.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남으라는 명령을 받는다. 그들은 원수의 땅을 고향으로 삼고 번식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받는다(렘 29:6).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도시의 시민”들에게 “인간 도시의 최고의 거주민이 되라”고 하셨다.³² 마이아트의 말을 빌리면,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봉사하는 것이었으며, 그것이 해방을 위한 궁극적인 보장이었다(렘 29:7).³³

27 Myatt, “God in the Gotham: Tim Keller’s Theology of the City,” 184.

28 Keller, 『팀 켈러의 센터처치』, 294.

29 Stafford, “How Tim Keller Found Manhattan,” 25.

30 이동환, “도시를 이해하고 복음으로 도전하라: CTC 이사장 팀 켈러 목사,” 38.

31 Myatt, “God in the Gotham: Tim Keller’s Theology of the City,” 182.

32 Keller, 『팀 켈러의 센터처치』, 308

33 Myatt, “God in the Gotham: Tim Keller’s Theology of the City,” 183.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유수는 켈러의 도시 신학의 배경이 된다. 바벨론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스도인들 역시 세속 도시 가운데 살고 있다. 켈러는 오늘날 교회들은 바벨론 포로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도시를 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거할 장소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도시의 시민으로 살아야 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국가 안에 있는 대항적 공동체”³⁴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한 나라의 시민이면서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는 존재”³⁵라는 것이 켈러의 관점이다. 이러한 켈러의 관점을 마이어트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본향에 대해 최우선의 충성을 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시민과 문화적 삶에 완전히 참여하기를 기대하는 한 나라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살아야 한다”³⁶라고 정리했다.

켈러는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선교지로서 도시를 예찬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도 도시화는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 사람들은 계속 도시로 몰리고 있다. 세계인구 50%가 도시에 살고 있다.³⁷ 따라서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에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보내는 것이 선한 청지기 모습이라고 켈러는 주장한다. 켈러는 “도시에서의 사역이 효과적으로 되려면 그리스도인들이 도시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³⁸라고 주장한다. 도시를 즐겨야 하고 사랑해야 한다고도 말한다. 궁극적으로 켈러는 “사람들로 가득 찬 도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피조물로 가득 찬 곳이기도 하다”³⁹라고 선언한다. 그는 말하기를 “도시 안에서의 효과적인 사역을 배워야 할 필요성이 이렇게 컸던 시대는 없었다”⁴⁰라고 주장한다. 도시에는 젊은 세대들, 문화적 엘리트들, 그리고 접근 가능한 미전도 종족(빈곤층)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켈러는 “오늘날

34 Keller, 『팀 켈러의 센터처치』, 313.

35 Keller, 『팀 켈러의 센터처치』, 314.

36 Myatt, “God in the Gotham: Tim Keller’s Theology of the City,” 183.

37 Keller, 『팀 켈러의 센터처치』, 351.

38 Keller, 『팀 켈러의 센터처치』, 358.

39 Keller, 『팀 켈러의 센터처치』, 361.

40 Keller, 『팀 켈러의 센터처치』, 341.

복음주의 교회가 도시 사역을 강조하고 지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⁴¹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전도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도시로 가야 한다. 다음 세대를 전도하려면 반드시 도시로 가야 한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문화 창조에 어떠한 영향력이라도 가지길 원한다면, 반드시 도시로 가야 한다. 가난한 이들을 섬기려면 우리는 반드시 도시로 가야 한다.⁴²

켈러는 도시 선교가 초대교회 선교패턴이었음을 주장한다. 그는 초대교회의 활동을 도시 운동으로 간주한다. 그는 존 스토틀(John Stott)의 말을 인용하면서, 바울의 전략은 거점 도시를 복음으로 점령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바울은 지성적 중심지(아테네), 상업적 중심지(고린도), 종교적 중심지(에베소), 정치적 중심지(로마) 등을 복음화의 타깃으로 삼았다는 것이다.⁴³ 켈러는 오늘날의 교회가 이러한 초대교회의 전략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도시의 성장을 따라가야 한다. 복음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이다.”⁴⁴ 켈러는 단호히 “기독교는 도시의 종교이다”⁴⁵라고 선언한다.

3. 문화(상황화) 중심의 목회

켈러의 문화에 대한 이해는 탁월하다. 신성욱은 “팀 켈러보다 현대 문화를 더 잘 이해하는 목회자를 만나보지 못했다. 그는 진정 문화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학생이다”⁴⁶라고 평가했다. 켈러는 교회가 도시의 문화를 이끌어야 하는데, 교회가 현대의 문화를 이해하고 있지 않기에 오히려 교회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한다. 문화에 대한 켈러의 전제는 ‘문화는 바뀌어 왔고 지금도 바뀌

41 Keller, 『팀 켈러의 센터처치』, 345.

42 Keller, 『팀 켈러의 센터처치』, 346.

43 Keller, 『팀 켈러의 센터처치』, 318.

44 Myatt, “God in the Gotham: Tim Keller’s Theology of the City,” 184.

45 Keller, 『팀 켈러의 센터처치』, 324.

46 엄스터브, “팀 켈러의 그리스도 중심의 강해 설교,” 『목회와 신학』 361(2019.7), 68.

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물고기가 자신을 둘러싼 물이 무엇인지 인식할 수 없듯이 인간은 자신이 속하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자기 문화를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켈러는 복음을 전파하려면 문화를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복음 역시 하나의 독립된 문화이기에 복음 전파는 곧 문화 전파이고, 그것은 기존 문화에 복음 문화를 침투시키는 것이기에, 기존 문화를 알지 못하고서는 결코 복음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켈러의 복음과 문화의 관계 이해이다. 여기에서 켈러가 매우 중요시한 복음의 “상황화”가 나온다. 따라서 연구자는, 비록 켈러는 『센터처치』에서 문화와 상황화를 구별하여 서로 다른 장(Chapter)에 적어 놓았지만, 문화와 상황화를 묶어서 다루려고 한다.

켈러는 교회가 지금까지 문화에 대해 “경건주의 태도”를 유지해 왔다고 주장한다. 문화에 대한 경건주의 태도는 “문화적 단절이나 적대 형태”를 의미하는데, “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바른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여기는 태도이다.⁴⁷ 문화에 대한 이러한 경건주의 태도는 결과적으로 문화로부터 교회가 배척을 받아 교회의 쇠퇴를 초래했을 뿐이다. 20세기 후반에 기독교 세계관 운동, 구도자 교회 운동, 이머징 교회 운동, 두 왕국 모델 운동 등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들은 모두 문화에 대한 경건주의적 태도로 인해 교회가 쇠퇴하자, 교회가 문화와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 시도한 현상이라고 켈러는 평가한다.

켈러는 지금까지의 문화에 대한 교회의 대응 방법을 소개한다. 교회들은 문화와 싸우기도 했으며, 문화를 외면하기도 했고, 또한 문화를 수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화에 대한 교회의 대응을 켈러는 변혁주의 모델(Transformationist Model), 적절성 모델(Relevance Model), 반문화적 모델(Countculturalist Model), 두 왕국 모델(Two Kingdoms Model)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각 모델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그 사상적 줄기가 기독교 안에서 현재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비교적 소상히 그리고 탁월하게 전개하고 있다. 켈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47 Keller, 『팀 켈러의 센터처치』, 392.

각각의 모델들을 일정 거리에서 살펴보면, 이들은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진정한 문제를 짚어내고 있으며 분명 세상 문화 속에서의 증언을 다루고 있다 … 각 모델의 핵심 진단은 정확하고 본질적이지만, 동시에 불안전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은 무엇일까?⁴⁸

결국, 켈러는 문화를 대하는 방법에 있어서 균형을 요구한다. 그는 말하기를 “성경은 타협적인 균형이 아닌, 모든 가르침을 통해 ‘동시적이며 통시적으로 통제되는’ 균형을 요구한다”⁴⁹라고 말한다. 그는 성경의 모든 조건을 아우르는 모델은 존재하지 않으며 각 모델에는 분명 타당한 점이 포함되어 있지만 충분하지는 않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문화에 참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켈러는 말한다. 문화 참여란 “문화를 버리는 것과 지배하는 것 사이의 중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안에 머물면서 자신의 독특성을 표출하는 것이며 헤어지지 않으면서 떠나는 것”⁵⁰이라는 다소 애매한 표현을 켈러는 사용한다. 전적인 변혁에 대해서는 “아니오”, 적응에 대해서도 “아니오”, 그러나 참여에 대해서는 “예”라는 그의 논리를 견지하고 있다.

켈러는 그의 저서 『팀 켈러의 설교』(*Preaching*)에서, 문화에 따라 변할 것인가 아니면 문화에 도전할 것인가를 묻고 있다. 그는 “주위와 공명하면서도 저항하라”라는 제목하에, 대항하기 위해 적응하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사도 요한이 이교 용어 “로고스”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요한은 단지 문화에 대항하지도, 단순히 그것에 적응하지도 않았다. 그는 가능한 한 가장 끈끈하고 사랑스러운 방식으로 당시 문화에 대항하기 위해 그것에 적응했다”⁵¹라고 문화 참여에 대한 합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문화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가? 켈러는 그것을 “복음의 토착화”라고 명명하고 있다. 켈러는 복음의 상황화에 대하여 매우 강조하고, 이에 관하여 많은 글을 썼으며, 강의했다. 켈러의 설교에 나타난 상황화를 연구한 신성욱은

48 Keller, 『팀 켈러의 센터치치』, 471.

49 Keller, 『팀 켈러의 센터치치』, 481.

50 Keller, 『팀 켈러의 센터치치』, 493.

51 Timothy Keller, *Preaching*, 채경락 역, 『팀 켈러의 설교』 (서울: 두란노, 2016), 135

“[켈러의] 목회 사역이 성공적으로 열매 맺은 것은 상황화의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활용했기 때문이다”⁵²라고까지 말했다. 그렇다면 복음의 상황화란 무슨 의미인가? 켈러는 복음의 상황화를,

특정 시기와 특정 지역에서 사람들이 삶에 대해 갖는 질문에 대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형태로, 그리고 그들이 힘 있게 느낄 수 있는 호소와 논증을 통해서, 비록 그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고 심지어 반대할지라도 성경의 답을 주는 것이다.⁵³

라고 정의한다. 그는 “상황화를 공교하게 하는 것은 오늘날 효과적인 사역의 열쇠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교회는 도심과 문화적 중심 지역에서 상황화와 관련된 이슈들에 예민해야 한다”⁵⁴라고 말한다.

물론 켈러는 상황화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그는 상황화(Contextualization)와 토착화(Indigenusness)를 구별하면서, 상황화가 지나치면 “문화의 가치가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⁵⁵ 하게 되어 종교적 혼합주의가 되어 버린다고 경고했다. 진정한 상황화(정당한 상황화)와 위험한 혼합주의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켈러는 지난 2018년 3월 7일 한국을 방문하여 상황화에 대한 특강을 하였다. 비록 그의 『센터처치』에 있는 내용과 대동소이한 내용이지만 그때 그 강연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⁵⁶

1. 복음의 상황화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성경은 세세한 것을 말하지 않고 문화 속에서 결정하도록 자유를 허락하고 있다.
2. 복음의 상황화를 위해서는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상황화가 덜 되면 아무도

52 신성욱, “팀 켈러 설교의 상황화와 적용,” 88.

53 Keller, 『팀 켈러의 센터처치』, 189.

54 Keller, 『팀 켈러의 센터처치』, 192.

55 Keller, 『팀 켈러의 센터처치』, 195.

56 이 강연 내용은 목회신학에 대담형식으로 실려 있기도 하다. 이동환, “도시를 이해하고 복음으로 도전하라: CTC 이사장 팀 켈러 목사,” 40-41.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 지나치게 상황화되면 문화의 우상에 끌려갈 수 있다.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일 때 변화를 하려 않으려고 하거나 너무 빨리 변화하려고 하는 것은 모두 위험성이 있다.

3. 복음의 상황화는 성경적이다. 바울과 예수님은 상황화의 전문가이다.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답을 주어야 한다. 문화 속 사람들이 표현하는 열망에 대한 성경적 성취가 무엇인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

켈러는 카슨(D. A. Carson)의 “문화를 덧입지 않고 소통할 수 있는 진리는 없다”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그러나 모든 문화, 모든 사람에게 기독교 믿음을 보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방법 역시 없다고 한다. 따라서 그는 각 문화권 안에서 복음의 상황화는 불가피하다고 역설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자문화 접근법을 ‘유일한 기독교적 방식’이라고 신성시”⁵⁷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켈러는 “당신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단어를 선택하는 순간 상황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⁵⁸라고 하면서 복음의 상황화를 위해 문화의 인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물론 켈러는 복음의 상황화에 있어서 균형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상황화를 성경의 진리와 문화적 상황 간의 다리 놓기로 묘사하면서, “성경의 진리 쪽으로 치우치면 고립주의가 되고 문화적 상황으로 치우치면 세속주의가 된다”라고 하면서, 건전한 상황화는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지킨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성경 이해만이 정확무오하다고 믿는 자는 결코 상황화를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기존의 이해”를 의식하고 탈피하는 훈련을 해야만 한다고 켈러는 주장한다. 성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문화의 인식이 이루어질 때 균형 잡힌 상황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켈러는 상황화의 대가(大家)로 예수님과 바울을 예로 들고 있다. 켈러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다양했다고 주장한다. 즉, 경우와 형편에 따라 달랐다는 것이다. 켈러는 또한 “바울이 복음을 각 사회의 기저에 있는 문화적 내러티브에

57 Keller, 『팀 켈러의 센터처치』, 205.

58 Keller, 『팀 켈러의 센터처치』, 199.

적용하는(맞닥뜨려 완성하는) 모습을 보면 놀라울 뿐이다”⁵⁹라고 말한다. 사도 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설교를 보면, 바울은 언제나 복음을 청중들에게 맞추고 있다. 물론 어떤 설교이건 간에 바울의 설교에는 단 하나의 복음만이 있다. 그러나 바울은 청중의 문화에 따라 그 하나의 복음을 다르게 전달했다. 켈러는 바울을 비롯한 초기 설교자들의 문화 참여를 통한 상황화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초기 기독교 전달자들은 세속 문화들의 논제가 입안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으나, 문화의 어휘와 개념들은 무시하거나 편협하지 않았다… … 초기 기독교 전달자들은, 아무리 놀라운 것이라 해도 당시 문화를 친밀하게 이해했고, 문화를 향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용어로 말하지 않았다.⁶⁰

켈러는 “바울의 설교들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문화의 사람에게 딱 맞는 유일무이하고도 초문화적 형태의 복음 제시 방법은 없다는 것이 상기하게 된다”⁶¹라고 역설하면서,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최대의 문제는 비신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비신자들과 연결되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력이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한탄하고 있다.⁶²

4. 사회정의(구제) 구현 중심의 목회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행동해야 한다. 사회를 개발하고 개혁하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다. 켈러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사명을 매우 잘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의 목회를 통해서 거듭 강조하고 또 구현하려고 애썼다. 켈러에게 있어서 말씀과 실천은 동전의 양면이다. 그는 “두 가지 관심사는 항상 같이 가야 한다… … 말씀과 실천은

⁵⁹ Keller, 『팀 켈러의 센터처치』, 238.

⁶⁰ Keller, 『팀 켈러의 설교』, 134-135.

⁶¹ Keller, 『팀 켈러의 센터처치』, 242.

⁶² Keller, 『팀 켈러의 센터처치』, 470.

신학적으로 함께 가는 것이다”⁶³라고 주장한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메시지를 나누고, 동시에 복음으로 이웃이 되는 사역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그는 믿는다. 그는 말씀 그리고 자비와 정의의 행동,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켈러의 확신은 『센터처치』 뿐만 아니라 그의 책 『팀 켈러의 정의란 무엇인가』(*Generous Justice*)에도 잘 나타나 있다.

켈러가 그리스도인들이 자비와 정의의 사역을 해야만 하는 성경적인 근거로 제시한 것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는 그리스도인들은 봉사하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정의를 행하고” 또는 “바르게 살도록” 명령받았다는 것이다. 그는 “바르게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대한 공동체의 요구를 항상 인식하면서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⁶⁴라고 말한다.

팀 켈러는 그의 최근 저서인 『팀 켈러의 부활을 입다』(*Hope in Times of Fear*)에서 “혼자 도덕적이고 거룩하면 끝일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답한다. 그는 “그리스도인은 불의 앞에서 소극적이면 안 된다”⁶⁵라고 단언한다. 켈러는 누가복음 4장 18-19절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를 설명하면서, “대반전의 패러다임”이란 말을 사용한다. 이 말의 의미는 영적으로 가난하여져서 구원받으면 그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는 주장하기를, 이렇게 “대반전의 패러다임”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은 “경제적으로 약하고 가난한 주변 사람들의 사정”이 눈에 보이게 된다고 한다. 그는 말하기를 “대반전을 통해 자신의 영적 빈곤을 인정하여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결국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된다”라고 결론 내린다.⁶⁶

켈러는 교회가 실행할 수 있는 자비 및 정의 사역의 실제적인 방법들을 소개한다. 첫째가 구제(Relief)이다. 이것은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신체적, 물질적,

63 Keller, 『팀 켈러의 센터처치』, 675.

64 Keller, 『팀 켈러의 센터처치』, 679.

65 Timothy Keller, *Hope in Times of Fere*. 윤중석 역, 『팀 켈러의 부활을 입다』 (서울: 두란노, 2021), 264.

66 Keller, 『팀 켈러의 부활을 입다』, 264.

사회적 필요를 채우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는 개발(Development)이다. 이것은 교육, 직장 창출, 훈련, 주택개발 등과 같은 사역을 통해 사람이나 공동체가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개혁(Reform)이다. 이것은 사회적 조건과 구조를 변화시키려고 시도하는 것을 의미한다.⁶⁷

켈러는 이상의 세 가지에 대해 지금까지 교회들이 일반적으로 구제에는 적극적이며, 개발에는 소극적이고, 개혁은 교회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한다. 또한, 이 이슈에 있어서 보수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의 접근 방법이 한쪽으로 치우침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보수주의자들은 가난한 사람을 돕기 원하는데, 단지 자비에만 근거해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 이는 가난은 전적으로 개인의 무책임의 문제라고 보는 신념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이 관점은 종종 '가진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출생 시 받은 기회와 자원의 불균등한 분포에 매우 기인한다는 점을 간과한다. 자유주의자들은 불의에 대한 분노 의식의 발로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려는 동기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 관점도 중요한 진리를 간과한다. 즉, 반복되는 가난으로부터 탈피하도록 돕는 데 있어서 개인의 책임은 많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다.⁶⁸

켈러는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인 개인과 교회의 태도에 관심이 많다. 켈러는 세미나에서의 교육을 위해 가난한 자들을 주제로 논문을 한 편 작성하였다. 논문의 제목은 “The Gospel and the Poor”이다. 그런데 이 논문은 제목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켈러의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를 매우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켈러는 “복음 목회”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복음은 개인이나 집단, 또 교회 안이나 밖에서 기독교 실천의 기초이자 원동력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67 켈러는 그의 최근 저서에서 그리스도인이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을 보다 개인적이고 목회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①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는 것, ②아낌없이 베푸는 것, ③힘없는 사람을 옹호하는 것, ④공동의 책임과 개인의 책임을 묻는 것 등으로 말한다. Keller, 『팀 켈러의 부활을 읽다』, 269-273.

68 Keller, 『팀 켈러의 센터처치』, 681.

복음 목회는 단지 비신자들에게 복음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것만이 아니라고 한다. 복음 목회는 신자들이 그들의 모든 삶을 형성하게 하도록, 그리고 그들이 복음적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하도록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으로 목양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복음이 영향력을 끼치는 가장 두드러진 영역 중 하나는 우리의 가난한 사람들과의 관계”⁶⁹라고 말한다. 즉 복음은 신자로 하여금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을 수 없도록 한다는 말이다. 더 나아가 한 인터뷰에서 켈러는 “내가 아는 모든 것은,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는다면, 나의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악이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선택적이 아니다. 가난한 자들과 나누지 않는 것은 그 의미상 불의이다. 우리가 우리의 돈을 줄 수 있는 것만큼 가난한 자들에게 빛을 지고 있다는 것은 성경적이다”라고 역설했다.⁷⁰

그렇다면 켈러가 생각하는 가난한 자들은 누구인가? 즉 “가난한 사람”에 대한 켈러의 정의가 무엇인가? 켈러는 “당신은 주변의 절대 빈곤층만 도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을 정의할 때 너무 좁게 생각하지 말라”⁷¹라고 권면한다. 그는 말하기를 “교회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우선순위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것은 교인이 아닌 사람들을 돕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어떤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이다”⁷²라고 한다. 켈러는 결코 가난한 사람을 교회 안 신자들로 국한하지 않았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는, 자비의 사역이 언약공동체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됨을 보여준다. 공동체 밖의 사람들에게까지 확장되어야만 한다”⁷³라고 켈러는 주장한다.

켈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구제 동기가 무엇인가? 그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구제 동기는 다름 아닌 은혜이다. “정의를 행하는 신학적 근거와 동기부여는 바로 은혜에 의한 구원이다!”라고 선포하면서, “은혜를 경험한 마음에서

69 Timothy Keller, “The Gospel and the Poor,” *Themelios* 33/3 (Dec. 2008), 9; Keller, “The Gospel and the Poor,” 10.

70 Kristen Scharold, “What We Owe the Poor,” *Christianity Today* 54/12 (Dec. 2010), 69.

71 Keller, 『팀 켈러의 센터치치』, 666

72 Keller, 『팀 켈러의 센터치치』, 686.

73 Keller, “The Gospel and the Poor,” 15.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려는 동기⁷⁴가 있어야 한다고 켈러는 강조한다. 사실 “믿음과 행위”(Faith & Work)는 켈러 목회론의 중요한 이슈이다. 믿음의 결과로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행위로 인해 믿음이 주어지는가에 관한 켈러의 논증은 『센터처치』뿐만이 아니라 그의 다른 저술과 강연에 자주 등장한다.⁷⁵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에서 소경을 치유하신 후에 그에게 어떤 요구도 하지 않으셨다. 단지 가서 씻으라고 하셨다(눅 6:32; 요 9:7 참조). 이 이야기 안에서 구제에 대한 참된 동기를 찾을 수 있다고 켈러는 말한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제를 베풀 경우, 비록 그 대상이 복음에 접촉되기를 바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건도 전제해서는 안 되는, 즉 조건 없는 은혜 베풀어야 한다. 켈러는 “크리스천이 어려운 처지에 빠진 이들을 돕는 동기는, 정의감(눅 18:1-8)과 비참한 상황을 어떻게든 완화시키고자 하는 진실한 관심(눅 10:25-37, 다른 말로 하자면 ‘자비’)이 전부여야 한다”⁷⁶라고 말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74 Keller, 『팀 켈러의 센터처치』, 682.

75 “the moral-performance narrative identity”: I obey, theretofore I an accepted by God. “the grace narrative identity”: I am accepted by God through Christ; therefore I obey. Tim Keller, “The Advent of Humility: Jesus Is the Reason to Stop Concentrating on Ourselves,” *Christina Today* 52/12 (Dec. 2008), 52. 이러한 내용을 『팀 켈러, 하나님을 말하다』(*The Reason for God*)에서는 종교와 복음의 차이로 말하고 있는바, “종교의 구동 원리는 ‘나는 순종한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를 받아 주신다’라는 개념이다. 반면 복음의 구동 원리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은 날 용납해 주신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Keller, 『팀 켈러, 하나님을 말하다』, 279. 켈러는 또한 말하기를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나 비종교에서는 행위가 평결로 이어지지만,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먼저 평결이 먼저 주어지고, 그리고 그 “평결이 행위로 이어진다”라고 말하므로 선한 행위의 동기에 있어서 종교와 복음의 차이점을 말하고 있다. Timothy Keller, *The Freedom of Self-Forgetfulness*, 장호준 역,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 (서울: 복 있는 사람, 2012), 56. 켈러는 어느 한 인터뷰에서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종교를 우상이라고 주장했다. “하나의 우상은 당신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을 의존하는 대신에 당신의 의존하는 어떤 것이다. 종교적 우상 중의 하나는 도덕적 삶의 기적이다. ‘내가 선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은 나를 받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왜냐하면 내가 올바른 교리에 대하여 충실하기 때문이다.’ 올바른 교리와 도덕적 삶의 경력은 권력의 형태들이다.” Sarah Pulliam Bailey, “American Idols: Tim Keller on Why Money, Sex, and Power So Easily Capture Our Affections,” *Christian Today* 53/11 (Nov. 2009), 71.

76 Timothy Keller, *Generous Justice*; 최중훈 역, 『팀 켈러의 정의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 2012), 89.

우리는 우리의 도움을 단지 그 사람이 복음에 대하여 열리게 하기 위해서 주어서는 안 된다. 또한, 그가 영적으로 수용자가 되지 않는다 하여 베푼 도움을 다시 회수해서도 안 된다. 우리가 도움을 베푸는 동기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임은 너무나 자명하다.⁷⁷

이러한 켈러의 가르침을 따르는 리디머 교회는 교회가 위치한 지역의 가족, 한부모 가족, 빈곤계층, 저소득 사업가들을 섬기고 훈련하는데 교회 전체 예산의 25%를 할애하고 성공적인 사역을 실천하고 있다고 한다.⁷⁸ 2015년 한 해 동안에만 140만 달러를 지원하고 총 4만 시간의 자원봉사를 이행하였다고 한다.⁷⁹ 켈러의 주장에 의하면 가난한 자들에 대한 목회는 우리가 복음을 믿고 있는 결정적인 표징이다.

5. 교회개혁 중심의 목회

복음이 켈러의 모든 목회의 정신이요 기본이라는 사실은 이미 말한 바 있다. 복음은 켈러의 모든 목회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마찬가지로 복음은 켈러의 교회개혁 중심의 목회를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다. 복음은 그리스도인 또는 교회를 자연스럽게 교회개혁으로 내몬다는 것이 켈러의 주장이다.⁸⁰ 켈러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들의 교회개혁은 매우 자연스러운 행위였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 자연스러운 교회개혁이 우리 시대에서 오랫동안 무시되었고 안타까워한다. 그는 말하기를 “교회개혁은 상처가 되거나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습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⁸¹라고 한다.

켈러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3단계 전략을 말한다. 그것은 전도, 공동체

77 Keller, “The Gospel and the Poor,” 18.

78 손병덕, “뉴욕 중심가에 복음으로 선한 사역을 일으키는 리디머 장로교회,” 123. 물론, 어느 한 교회의 예산 중 어느 정도가 구제 사역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절대적 기준은 없다. 단지 25%라는 수치에 의해 리디머 교회를 평가할 수 없다.

79 손병덕, “뉴욕 중심가에 복음으로 선한 사역을 일으키는 리디머 장로교회,” 124.

80 Keller, 『팀 켈러의 센터처치』, 744.

81 Keller, 『팀 켈러의 센터처치』, 745.

형성, 그리고 지도자 세움이다. 그리고 이 3단계 전략은 자연스럽게 교회를 탄생시켰다. “바울이 그들과 만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제자들’이라고 불렸다. 그러나 그가 떠났을 때 그들은 ‘교회들’이 되어 있었다.”⁸²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해서 켈러는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개척을 교회가 늘 행하는 당연한 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교회가 예배, 전도, 교제, 교육, 봉사 등을 지속적이며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듯이 교회개척 역시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히 켈러는 도시에서의 교회개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도시로의 인구 집중률과 비교하면 교회개척률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에서는 매월 500만 명이 도시로 유입되고 있다. 만약 5,000명에 하나꼴로 교회가 필요하다면 매월 1,000개의 도시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이 켈러의 지론이다.⁸³ 켈러는 도시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교회가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 왜냐하면, 인구는 유입되는 반면 교회는 일정 비율로 죽기 때문이다. 때문에, 켈러는

지속적인 쇠퇴를 막으려면 평범한 수준의 교회개척이 계속 있어야 한다. 그러나 [도시에서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려면 공격적인 수준의 교회개척이 필요하다... 연구와 경험의 결과로 보면, 1만 명당 하나의 교회가 있을 때 인구의 약 1%가 교회에 간다. 반면 1천 명당 하나의 교회가 있으면 도시 인구의 15~20%가 교회에 간다. 만일 이 숫자가 5백 명당 하나로 바뀐다면, 40% 또는 그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다. 교회의 수와 교회의 오는 사람들의 수 사이의 상관관계는 선형적이지 아니라 기하급수적이다.⁸⁴

라고 주장한다. 켈러는 “도시의 그리스도인들을 증가시키는 주된 방법은 교회 부흥이 아니라 교회개척을 통해서이다”⁸⁵라고 단호히 말한다.

교회개척 중심의 목회를 위해서 켈러는 세 가지 지침을 제공한다. 첫째는 자원에 대한 포기이다. 켈러는 교회개척을 위해 모 교회(Mother Church)는

82 Keller, 『팀 켈러의 센터처치』, 747.

83 Keller, 『팀 켈러의 센터처치』, 338.

84 Keller, 『팀 켈러의 센터처치』, 761.

85 Keller, 『팀 켈러의 센터처치』, 754.

돈, 사람, 지도자 등의 자원을 포기하고 내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들에 대한 지배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당신이 새로운 사람들을 새로운 교회로 조직한다면, 돈과 사람들, 교인 수, 지도자, 통제권을 잃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바울이 했던 일이다”⁸⁶라고 말한다. 물론 그것이 자(子)교회(Daughter Church)에 대한 방임과 무책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모 교회가 성인 자녀에 대한 부모의 자세를 유지해야 함은 당연하다.

둘째는 모 교회를 복제해서는 안 된다. 즉, 모 교회와 똑같은 교회를 세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켈러는 “새로운 교회는 기존 교회와 같은 모양일 수 없다는 것은 아주 명료한 사실이다”⁸⁷라고 말한다. 그러나 모 교회와 너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도 말한다. 너무 차이가 나면 교제와 협력이 삐걱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개교회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야 한다. 켈러는 바울이 아볼로를 인정하고 품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개교회주의를 탈피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관심을 가지라고 권면한다.

우리는 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새로운 사람을 기뻐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그 교회에 보낸 몇 가정 때문에 슬퍼하고 분개할 것인가?
새 교회가 형성될 때 보이는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제도적 이익에
연연하는지, 아니면 도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전반적인 건강과 융성을 위하
는지 드러난다.⁸⁸

켈러 목사가 은퇴하고 또 교회를 세 개로 분립한 데도 사실은 켈러의 교회개혁에 대한 열망이 컸기 때문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그가 은퇴를 결심한 배경에는 우선은 그 자신이 시티투시티 사역에(교회개혁 사역) 헌신하기 위함이었으며(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또 하나는 자신으로 인해 교회개혁이 활성화되지 못함을 알았기 때문이다(이는 연구자의 추론이다). 이러한 추론은 그의 후임자 중의 하나인 이스트사이드 리더머 처지의 아브라함 조 목사의 고백을

⁸⁶ Keller, 『팀 켈러의 센터처치』, 750.

⁸⁷ Keller, 『팀 켈러의 센터처치』, 750.

⁸⁸ Keller, 『팀 켈러의 센터처치』, 752.

통해서 가능하다. 그는 “저희는 맨해튼에서 교회개혁의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⁸⁹라고 고백한다. 이는 모든 사람이 켈러의 설교만을 들으려 했기 때문에 다른 교회를 개척한다 해도 별 의미가 없었다는 의미이다. 켈러는 자신이 무대 뒤로 사라지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교회개혁에 대한 열정이 컸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교회개혁 중심 목회를 추구하던 켈러와 리디머 교회는 2001년 이 사역을 위한 <Redeemer City to City>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Redeemer City to City> 프로그램은 전 세계 주요 도시에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시작된 이래 2016년까지 유럽, 남미, 아프리카, 호주, 그리고 아시아권 등 전 세계 56개 도시에 423개 교회를 개척, 1만 3,000명의 도시교회 개척 지도자를 훈련해 왔다.⁹⁰ CTC의 아시아-태평양 책임자 제이 카일은 리디머 교회가 교회의 전체 예산의 15%를 이 사역에 쏟아붓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⁹¹ 이 외에도 뉴욕 시 내의 교회개혁을 위하여 <뉴욕 시 동역자 프로그램>, <도시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집중훈련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켈러의 교회개혁 중심 목회는 전 세계 현장에서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하겠다.

IV. 팀 켈러의 목회론에 대한 평가

1. 켈러의 목회론은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인식 위에 구축되었다.

마이클 호튼(Michael Horton)은 “복음을 분명하게 선포한다는 점이 팀 켈러

89 김보경, “스페셜 인터뷰: ‘오직 복음과 신실함으로 행하라’”, 30.

90 이동환, “도시를 이해하고 복음으로 도전하라: CTC 이사장 팀 켈러 목사.” 37.

91 이동환, “스페셜 인터뷰: CTC의 도시 교회개혁 원리, ‘센터처치를 세우라’-제이 카일 목사,” 「목회와 신학」 333(2017.3), 32. 오종향은 교회 예산의 20%를 투입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오종향, “복음적 교회개혁 운동: 잘 훈련된 사역자들이 필요하다,” 「목회와 신학」 307(2015.1), 127.

의 사역에서 내가 가장 감사하게 여기는 부분이다”⁹²라고 말했다. 호튼의 이 평가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라고 본다. 켈러의 복음관은 너무나 선명하고 동시에 단순하다.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복음이 아닌지, 복음과 복음의 결과의 차이점, 복음과 사역의 관계, 복음의 다양한 소통 방법, 복음과 상황의 관계, 복음의 내용, 복음의 능력 등을, 연구실에서 사용되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변적 용어가 아니라, 목회 현장에서 사용되는 누구나 알아듣기 쉬운 실제적 용어로 켈러는 설명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그는 조직신학자의 언어가 아닌 실천신학자 혹은 일반 목회자의 언어로 복음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고 하겠다.

2. 켈러의 목회론은 개혁주의 신학 위에서 포용적이며 융통성 있게 구축되었다.

켈러가 개혁주의 신학을 배경으로 한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는 개혁주의 신학의 산실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했고 그곳에서 교수로 봉직했다. 또한, 그는 미국에서 개혁주의 신학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장로교회(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PCA) 소속 목사이다. 이러한 그의 경력이나 신분상의 이유뿐만 아니라, 그의 『센터처치』를 비롯하여 기타 그의 저술에 나타난 신학은 개혁주의 신학을 기초로 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복음, 부흥, 구원, 교회 등에 관한 그의 생각은 개혁주의 신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평가한다. 그렇기에 연구자의 동료 교수인 박현신은 켈러를 “새로운 칼빈주의 부흥의 기수” 또는 “칼빈주의 신학의 산맥 아래 선 켈러”라고 표현하고 있다.⁹³

하지만 신학자로서의 켈러의 강점은 단순히 그가 개혁주의 신학자요 목회자라는 점 때문만은 아니다. 그의 강점은 자칫 진리 수호라는 명목으로 교조주의화될 수 있는 개혁주의 신학의 약점을 극복했다는 점이며, 개혁주의 신학의 본질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신학적 융통과 포용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92 Timothy Keller, *Shaped by the Gospel*. 오종향 역, 『복음으로 세우는 센터처치』 (서울: 두란노, 2018), 104.

93 박현신, 『가스펠 프리칭: 7가지 키워드로 열어보는 팀 켈러의 설교 세계』 (서울: 솔로몬, 2021), 19, 35.

특별히 문화에 대한 켈러의 접근은 매우 실용적이며 포용적이라 판단한다. 그는 문화를 세속적인 것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문화를 포용하고 문화에 적응할 것을 권면한다. 그는, 각 문화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지만, “그럼에도 모든 문화 안에서 복음전도자나 교회개척자, 그리고 기독교 증언자들이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유연해지는 것이 중요하다”⁹⁴라는 허드슨 테일러(Hudson Taylor, 1832-1905)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그의 문화에 대한 융통성을 드러낸다.

일반적으로 개혁주의 신학에서 문화에 대한 접근은 두 왕국 모델이라 여겨지는데, 그는 단지 두 왕국 모델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두 왕국 모델을 기초로 해서 변혁주의 모델까지도 수용하고 있다. 복음을 상황화해야 한다는 켈러의 상황화 이론은 그의 신학적 융통성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일반은총 영역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⁹⁵ 이 땅의 정의 구현을 위해서 “비그리스도인과 겸손한 자세로 협력하라”⁹⁶라는 조언 등은 그의 신학이 외골수 신학이 아님을 보여준다.

연구자는 켈러를 무엇이든 양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을 거부하는 “온건주의 신학자”요, “열린 개혁주의 신학자”라 부르고 싶다. “이머징 처치”(Emerging Church)를 거쳐 오늘날의 대세로 자리를 잡은 “미셔널 처치”(Missional Church)에 이르기까지 개혁주의적 모델을 찾기가 어려웠는데, 켈러와 그의 리더 교회는 개혁주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3. 켈러의 목회론은 목회 현장 위에서 구축되었다.

켈러는 한 인터뷰에서 리더 교회 그 동안 도시와 관련하여서, 그리고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 많은 일을 했다고 말하면서 덧붙이기를, 그러나 그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일목요연한 도구나 방법론은 없었다고 고백한다. 그저 리더 교회가 사용한 방법은 사람들에게 단지 “오셔서 우리와 함께 놀래요?”라는 것이었다고 한다.⁹⁷ 켈러는 “리더 교회가 열매를 맺은

94 Keller, 『팀 켈러의 센터처치』, 235에서 재인용.

95 Keller, 『팀 켈러의 센터처치』, 232.

96 Keller, 『팀 켈러의 정의란 무엇인가』, 223.

진정한 비결은 목회 프로그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깊은 수준에서 작동하는 것에 있었던 것이다”⁹⁸라고도 말한다. 이를 달리 표현하여 켈러는 “미들웨어”라는 말도 사용한다. 이 단어는 컴퓨터 용어를 빌려 온 것인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연결하여 중간에서 조정과 중개의 역할을 수행하는 역할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켈러가 말하는 “우리와 놀자”, “보다 깊은 수준에서 작동하는 것”, 그리고 “미들웨어” 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연구자는 그것들의 공통적 의미가 바로 “현장”이라고 판단한다. 즉 켈러의 목회론은 탁상공론의 결과가 아니라 언제나 목회 현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사람의 교리적 믿음과 사역 방법들 사이에는 특정 문화적 상황과 역사적 순간 속으로 복음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한다”⁹⁹라는 그의 주장은 켈러의 목회론이 현장 중심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보여준다. 그렇기에 그는 교회가 실존하는 현장의 문화에 관한 관심이 지대하다. 소위 말해 켈러는 “현장 맞춤형 목회론”을 주장하고 있다 할 것이다. 그의 목회론은 목회 현장에 복음을 맥락화하는 상황화의 과정이다.

4. 켈러의 목회론은 지성을 기초로 하여 변증적으로 구축되었다.

켈러는 한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거나 혹은 안 하거나에는 언제나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지성적, 개인적, 사회적 이유이다”¹⁰⁰라고 말했다. 즉,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에는 지성적 이유, 개인적 이유, 그리고 사회적 이유가 있다는 것인데, 그중에서 켈러는 특별히 지성적 이유에 주목하고 있다.

복음을 거부하는 지성적 이유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나는데, 첫째 과학주의 혹은 사변주의에 의하여 기독교의 지성을 수준 낮고, 미신에 가까운 믿을 수

97 Susan Wunderink, “Tim Keller Reasons with America: the New York Pastor Explains Why He’s Taking His Ministry Model on the Road,” *Christianity Today* 52/6 (June 2008), 39.

98 Keller, 『복음으로 세우는 센터처치』, 12.

99 Keller, 『복음으로 세우는 센터처치』, 13.

100 Wunderink, “Tim Keller Reasons with America”, 39.

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며, 둘째는 종교는 지성을 도구화하거나 무기화해서 는 안 된다는 종교는 경험과 감정에 기초한다는 편견과 오해이다. 그래서 이 편견을 근거로 해서 오늘날 복음 전도는 관계적이어야 하고 감성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다.

하지만 켈러는 기독교의 지적 내용은 비신자들에게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지성을 이유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기독교가 가진 지성으로 오히려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켈러는 주장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켈러의 목회론은 상당히 높은 지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매우 논리적이고 변증적이다. 지성을 기초로 한 변증적 목회론이 가장 잘 나타난 대표적인 저서가 바로 *The Reason for God*이라 하겠다. 이 책은 비신자나 신자가 제기하는 질문에 대한 지적 답변을 변증적으로 제시한다.

이 책에서 “종교”와 “비종교” 그리고 “복음”의 대비는 지적으로 정말 탁월하다. 도시에 대한 신학적 접근도 매우 설득력 있는 변증이다. 켈러는 지성으로 무장한 회의주의자들과 무신론자들을 환영했다. 그들의 질문에 귀를 기울이고 그 질문에 대하여 거부감이 들지 않으면서도 진솔하고 지적인 논리와 답을 주고 있다. 연구자가 보기에 켈러는 뛰어난 기독교 변증가라고 판단된다.

켈러는 신학과 이론을 정립하는 데 많은 시간과 공력을 들인다. 무슨 사역이든 지 그 사역에 대한 신학적이고 이론적인 기초를 다지기 전까지는, 그래서 지적인 설계도를 완성하기 전까지는, 적어도 신자나 비신자에게 그 사역에 대하여 명확하고 단순한 지적 설명을 할 수 있기까지 준비되기 전까지는 그 사역을 선불리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5. 켈러의 목회론은 다소 이상주의적이라는 약점에 노출되어 있다.

켈러의 목회론의 약점 중의 하나는 그의 목회론이 이상주의 혹은 인간의 판단에 지나치게 의존하려 한다는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켈러가 “무엇을”(What)을 설명한 뒤에, 다음 단계인 “어떻게”(How)를 제시하기 위해 그의 저서에서 핵심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 그것은 “균형”이라는 단어가

다. “도대체 우리의 사역과 삶을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균형을 맞출 것인가?”¹⁰¹는 켈러의 근본적인 질문이다. 그의 핵심 용어인 “중심”(Center)은 다름 아닌 “균형의 장소”라고 말한다. “균형 잡힌 부흥주의”, “균형 잡힌 상황화”, “균형 잡힌 문화 참여”, “회심과 정의 실현의 균형”, “유기체와 조직체 사이의 균형” 등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결국 그의 핵심 목회론을 위한 방법론으로 “균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균형”의 판단을 결국 판단하는 당사자에게 맡겨놓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즉 방법론에 있어서 인간의 판단을 지나치게 신뢰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판단력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이상주의에 빠지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균형”이라는 말 자체가 성취해 내기 어려운 이상주의적 단어임과 동시에 주관적인 단어임을 부인하기가 어렵다.

켈러는 문화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전적인 변혁에 대해서는 아니요, 완전 적응에 대해서도 아니요, 그러나 참여에 대해서는 예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연구자도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문제는 이것의 실행에 있어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변혁도 아니요, 적응도 아니요, 그러나 참여”하는 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인지 불명확하다. 결국 개인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

요약하자면 복음을 모든 목회론을 위한 기초로 주장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그러나 그 복음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맡겨놓았다고 보인다. 호튼이 켈러의 목회론 안에는 “율법”의 기능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음 또한 같은 맥락이 아닌가 한다.¹⁰² 복음의 기능을 위해 “율법의 기준”이 필요한데, 이 기준이 개인에게 맡겨진 듯한 인상을 받는다.

V. 나가는 말

101 Keller, 『팀 켈러의 센터처치』, 72.

102 Keller, 『복음으로 세우는 센터처치』, 119-123.

지금까지 켈러의 목회론을 그의 『센터처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켈러의 목회론은 복음 중심, 도시 중심, 문화 중심, 사회정의 구현 중심, 그리고 교회개혁 중심이다. 켈러의 목회론을 전체적으로 평가한다면, 그의 목회론은 복음의 가치와 능력에 기초하고 있으며, 열린 개혁주의 신학에 기초하고, 언제나 목회 현장과 상관성을 갖고 있으며, 수준 높은 지성과 논리를 사용한 변증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의 목회론이 인간의 판단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아쉬움이 있기도 하다.

이제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연구자는 우리의 과제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그 과제는 켈러의 목회론과 한국교회의 관련성이다. 켈러의 목회론을 한국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과제이다. 켈러의 목회론은 품질이 뛰어난 씨이다. 그런데 아무리 고품질의 씨앗이라고 하더라도 토양이 그 씨앗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켈러의 목회론이란 씨앗은 미국 뉴욕이라는 토양에서 개발되었고 그 토양에서 발화되어 열매를 맺었다. 과연 그 씨앗이 대한민국이란 토양에서 발화하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이 오늘 팀 켈러를 공부하는 우리의 과제이다.

팀 켈러라는 씨앗이 대한민국이라는 토양에서 성장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설립된 단체가 CTCK(City to City Korea)이다. 켈러의 목회론이 한때의 봄이 아니라 항구적인 복음 운동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CTCK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자칫, CTCK가 몇 명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겉옷 역할로 전락하고, 자본주의 논리에 잠식당하며, 켈러 자신이 주장했던 “운동 역동성”이 아니라 “제도적 특성”에 의하여 운영된다면, 켈러의 목회론 역시 조만간 한국에서 사장될 것이 분명하다. 아이러니 중의 하나는, 어떤 단체이든 효과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조직화(인력)와 대형화(자본력)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조직화와 대형화가 이루어지면 필연적으로 처음의 본질이 훼손되고 세속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CTCK 역시 이러한 아이러니 속에 빠지는 중이라는 염려스러운 시각 또한 없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켈러가 그토록 강조한 “균형”을 CTCK 역시 잘 유지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좋은 씨앗인 팀 켈러의 복음 운동을 살려 나가기를 소망하며 연구를 마친다.

[참고문헌]

- Bailey, Sarah Pulliam. "American Idols: Tim Keller on Why Money, Sex, and Power So Easily Capture Our Affections." *Christian Today* 53/11 (Nov. 2009), 71-71.
- Keller, Timothy. "The Advent of Humility: Jesus Is the Reason to Stop Concentrating on Ourselves." *Christina Today* 52/12 (Dec. 2008), 50-53.
- _____. "The Gospel and the Poor." *Themelios* 33/3 (Dec. 2008), 8-22.
- _____. *Center Church: Doing Balanced, Gospel Centered Ministry in Your City*; 오종향 역. 『팀 켈리의 센터처치』. 서울: 두란노, 2016.
- _____. *Generous Justice*; 최종훈 역. 『팀 켈리의 정의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 2012.
- _____. *Hope in Times of Fere*; 윤종석 역. 『팀 켈리의 부활을 입다』. 서울: 두란노, 2021.
- _____. *Preaching*; 채경락 역. 『팀 켈리의 설교』. 서울: 두란노, 2016.
- _____. *Shaped by the Gospel*; 오종향 역. 『복음으로 세우는 센터처치』. 서울: 두란노, 2018.
- _____. *The Freedom of Self-Forgetfulness*; 장호준 역.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 서울: 복 있는 사람, 2012.
- _____. *The Reason for God*; 최종훈 역. 『팀 켈리, 하나님을 말하다』. 서울: 두란노, 2017.
- Myatt, William. "God in the Gotham: Tim Keller's Theology of the City." *Missiology* 44/2 (Apr. 2016), 180-193.
- Scharold, Kristen. "What We Owe the Poor." *Christianity Today* 54/12 (Dec. 2010), 69.
- Smietana, Bob. "Urban Planter: Who Fills the Pew of the Big Apple?." *Christianity Today* 55/5 (May 2011), 21.

- Stafford, Tim. "How Tim Keller Found Manhattan." *Christianity Today* 53/6 (June 2009), 22-26.
- Wunderink, Susan. "Tim Keller Reasons with America: the New York Pastor Explains Why He's Taking His Ministry Model on the Road." *Christianity Today* 52/6 (June 2008), 38-39.
- 김보경. "스페셜 인터뷰: '오직 복음과 신실함으로 행하라'-미국 이스트사이드리디머교회 담임 아브라함 조 목사." 『목회와 신학』 376(2020.10), 30-35.
- 김운용. "팀 켈러의 설교 사역과 그의 변증적 특성." 『목회와 신학』 361(2019.7), 78-85.
- 박현신. 『가스펠 프리칭: 7가지 키워드로 열어보는 팀 켈러의 설교 세계』. 서울: 솔로몬, 2021.
- 서동준, 김재완. "팀 켈러의 목회 여정과 뉴욕에서의 개척, 그리고 분립." 『크리스천 투데이』 (2018.02.15.).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09572>. (접속일: 2021년 8월 11일).
- 손병덕. "뉴욕 중심가에 복음으로 선한 사역을 일으키는 리디머 장로교회." 『목회와 신학』 326(2016.8), 123-125.
- 신성욱. "팀 켈러 설교의 상황화와 적용." 『목회와 신학』 361(2019.7), 86-93.
- 엄스티븐. "팀 켈러의 그리스도 중심의 강해 설교." 『목회와 신학』 361(2019.7), 64-69.
- 오종향. "복음으로 세속화된 도시를 변화시키라." 『목회와 신학』 324(2016.6), 194-197.
- _____. "복음적 교회개척 운동: 잘 훈련된 사역자들이 필요하다." 『목회와 신학』 307(2015.1), 126-129.
- 이동환. "도시를 이해하고 복음으로 도전하라: CTC 이사장 팀 켈러 목사." 『목회와 신학』 346(2018.4), 37-44.
- _____. "스페셜 인터뷰: CTC의 도시 교회개척 원리, '센터처치를 세우라'-제이 카일 목사." 『목회와 신학』 333(2017.3), 30-35.

[Abstract]**Tim Keller's Pastoral Theory: Focusing on *Center Church***

Hyun Phyo Yang

(Chongshin Theological Seminary, Assistant Professor, Practical Theology)

This study focuses on the pastoral theology of Rev. Tim Keller, the founder and senior pastor of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in New York, who is currently focusing on the “Redeemer City to City” movement. This study was based on Tim Keller's *Center Church*, his various other writings, and seminars he has hosted.

Keller's theory of pastoral ministry consists of three main pillars. They are “Gospel”, “City (Culture)”, and “Ministry (Church planting)”. This writer was able to find the following pastoral ministry themes based on these three pillars. ① Gospel-centered, ② City-centered, ③ Culture/contextualization-centered, ④ Social justice/mercy-centered, and ⑤ Church planting-centered. In addition to these, other themes such as family-centered, vocation-centered, prayer-centered, apologetics-centered, and missional church-centered. In this study, however, only the earlier five major themes are considered as comprising Keller's core pastoral theology.

In evaluating Keller's pastoral theology, this study finds the following: first, it is built on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gospel; second, it is inclusive, flexible, and coherent with Reformed theology; third, it is based on pastoral experience, as opposed to mere theory; fourth, it is committed to apologetics based on rationality. However, there is a small weakness as well: an

idealistic tendency to trust too readily in human judgment.

There is relevance to Keller's pastoral theology on the Korean church. While Keller's pastoral theology is a high quality seed, it cannot bear fruit if the soil is not ready to receive them. Keller developed his theology in the soil of New York, NY, USA, where it bore fruit. What clues are there for us to bear fruit in the soil of Korea? This is the task of our study of Tim Keller today.

Key Words: Tim Keller, Redeemer Church, Pastoral Theory, Gospel, City, Culture